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화장... 제 모습 괜찮나요”

‘찾아가는 나만의 풍암사진관’

풍암동협의체, 저소득층 어르신 4월부터 月5명씩 영정사진 촬영 꽃단장·어색한 미소도 즐겁기만 “건강하신 모습, 장수사진 되시길”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꺼내 입어봤네요. 제 모습 괜찮나요?”

지난 26일 광주 서구 풍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풍암동 협의체)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3 찾아가는 나만의 풍암사진관’이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진을 찍기로 한 5명의 어르신이 한데 모여 화장을 하거나 단추를 잠궜다 푸는 등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한 어르신은 여분의 옷까지 챙겨와 직원들에게 어떤 색깔의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며 몇 차례 거울을 보곤했다.

“2023 찾아가는 나만의 풍암사진관”은 풍암동 협의체가 지난 4월부터 매달 5명의 어르신을 선정해 영정사진을 촬영 및 제작해주는 행사다.

이번이 3번째지만 예쁘고 멋진 영정사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풍암동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좋은 반응을



광주 서구 풍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2023 찾아가는 나만의 풍암사진관’이 지난 26일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한 어르신이 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얻고 있다.

이날 촬영을 기다리던 김모(79)씨는 “처음에 영정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괜히 일찍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찍고 왔으면서 사진을 자랑스레 보여주는데 어찌나 잘나왔던지 부러워서 그걸로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진기사가 도착해 조명과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다시 거울과 빗을 꺼내들어 머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80대 어르신은 카메라 앞에서 자 환한 웃음을 짓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카메라가 어색하다며 연신 멧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 사람당 5~10분 내외로 카메라 셔터

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촬영이 끝났지만 예쁜 사진이 액자에 담겨 올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김모(87)씨는 “영정사진을 슬슬 찍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용이 부담돼 미루곤 했었다”며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년기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날 내 모습을 기록하고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영정사진을 찍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진을 찍으면 뭔가 더 오래 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 어르신들이나 사진업계 사이에서 영정사진은 미리 찍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돌면서 딱딱하고 어두운 ‘영정사진’이라는 표현대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사진’, ‘효도사진’이라 불리기도 한다.

영정사진 촬영을 담당할 정종문 사진기사는 “영정사진 대부분이 부모님이 병원에 몸져 누우실 때 자녀들이 급하게 찍은 사진을 인화해달라는 요청으로 만들어진 다. 고운 옷에 생기가 넘치는 얼굴이 아닌 이미 병세로 쇠약해진 어르신들의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제작할 때마다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에 부담없이 사진을 찍고 간직할 수 있는 행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영정사진 촬영 행사를 기획한 신수현 풍암동 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미리 영정사진을 찍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그 부담이 가다보니 미리 마련해놓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올해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직업병 안심센터, 산재 적극 개입 필요”

광주센터, 올 직업병 사례 155건 노동자 “산재 판단” 역할해야” 질병판정위 소관으로 권한 없어

직업병 사례를 통합 관리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산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국제사업센터에서 지역 노동계 및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안심센터 간담회가 개최됐다.

직업병 안심센터란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광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광주의 경우

조선대병원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라·제주 권역을 담당한다.

센터는 내원환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직업병 사례를 모니터링·취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필요시 환자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현장조사, 수사지원, 사업장 지도·지원 조치 등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 광주 센터가 수집한 지역 직업병 사례는 △감염성 53건 △호흡기 24건 △기타 24건 △심뇌혈관 7건 △피부 7건 △암 6건 △화학물질 3건 △사과 2건 △적응장애 1건 등 총 155건이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재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지정한 목표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서 ‘2023년도 노동계 및 보건관리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350건)의 44.3%밖에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이에 간담회 참여자들 사이에선 ‘홍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센터를 찾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선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원장은 “직업병을 진단받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처리 여부다”며 “산재 심사·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해 최소 1~2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센터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소견서 작성 등을 포함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센터의 역할은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맡고 있으면서도, 산재해제와 관련해 일부라도 판단·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다 보니 실제 광주 센터서 개소 후 1년간 현장조사 등을 나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철갑 센터장은 “우리가 업무관련평가서를 써줘도, 최종 판정은 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산재 처리를 위해 환자들이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며 “센터 측도 이 문제에 공감해 지난 6월9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사 자리서 ‘센터의 업무관련성 평가 이후엔 질병판정위원회 과정을 생략토록하는 것이 어떨까’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고 밝혔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GWANGYANG 2023 CITY TOUR

광양 야경투어

7월 금, 토, 일 상시 운행

- * 운행코스 : 순천정원박람회장(15:00 탑승)
 - 광양읍시외버스터미널(15:30 탑승)
 - 광양 와인동굴 → 불고기 특화거리(석식)
 - 구봉산 전망대 → 이순신대교 → 해오름육교
 - 광양읍시외버스터미널(21:00 하차)
 - 순천정원박람회장(21:30 하차)

운영기간

2023. 7. 1. ~ 7. 31. / 금, 토, 일요일 1회 운영

이용요금

일반 5,000원 / 군인·경로·학생 4,000원
장애인·미취학아동 3,000원 *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 별도

탑승방법

탑승장소 현장 탑승 ※ 예약 불필요

탑승장소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동문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
2. 광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시내버스 정류장

문의처

(유)초원관광여행사 ☎ 061-794-8804~5
광양시 관광과 ☎ 061-797-3716